

고문헌에 나타난 天馬와 汗血馬의 형상

박 세 옥*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汗血馬의 형상과 문학 |
| II. 神馬와 天馬 | IV. 나가면서 |

I. 들어가며

증기기관의 발명 이전, 인류에 있어서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 외교, 군사,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 생활문화에 있어서 한 중심에 있었다. 실제 말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시킬 것인가는 일개 국가의 안위와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로마제국의 문화가 그랬듯이 중원의 문화 역시 보다 우수한 말의 확보는 제국의 위상을 갈라놓았다. 이러한 중요성은 이미 周나라의 모든 관직 명칭과 직무를 기록해 놓은 《周禮》라는 책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말이나 수레를 관리하는 관직으로는 田僕은 왕이 사냥할 때 수레를 관장하였고, 馭夫는 각종 수레를 관리하고 公馬를 분류하는 일을 했으며, 趣馬는 좋은 말을 고르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고, 巫馬는 병든 말을 치료하는 관직이었으며 나아가 牧師라고 하여 말을 기르는 목장을 관리하는 직책도 있었다. 이 밖에도 마구간을 관리하면서, 거세하거나 馬祖에 대한 제사를 관장했던 廋人, 각 乘(4필)마다 圉人(말 1필을 관리)들이 말을 관리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하는 것을 감독하는 圉師 등의 관직들이 있었다.

한편 왕의 말을 총괄하는 校人이라는 직책도 있었는데, 그 체계를 보면, 우선 말을 6종으로 나누어 種馬, 戎馬, 齊馬, 道馬, 田馬, 駑馬라 하고, 4 필씩 묶어 乘이라 했으며[1명의 圉師가 있음] 3乘을 阜라 했고[1명의 趣馬가 있음], 3阜를 繫라 했으며[1명의 馭夫가 있음] 6繫를 廐라했다. 이러한 廐에는 좌우의 交인을 두어 관리하였다. 천자는 12개의 廐를, 제후국에는 6개, 家에는 4개를 두었다.¹⁾

이렇게 말의 사육과 관리, 그리고 그 활용과 연관된 주나라의 관직들을 통하여 국가의 말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었고, 말의 사육술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량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배가 시도되었고, 특히 말의 용도 역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고 의문스러운 것은 이러한 관리들의 직무들을 통하여 당시 말들은 대체로 수레를 끌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견인용으로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 까지만 해도 중화인들에게 타는 개념으로서 승마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황을 통하여 말을 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승마에 따른 馬具나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원에 최초로 승마나 기마민족의 풍습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로는 《戰國策·趙策2》에 실린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胡狄의 이점을 취하려는 武靈王에게 肥義란 신하가 묻자, 무령왕은 “무릇 세상의 뛰어난 功勳을 세우려면, 반드시 전해져 오는 세속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 독자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반드시 사람들의 우려를 받게 되어 있다. 지금 내가 胡服과 騎射로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하나, 세상 사람들이 기필코 나의 시비를 가리려 하는구나!(夫有个世之功者, 必負遺俗之累. 有獨知之慮者, 必被庶人之恐. 今吾將胡服騎射以教百姓, 而世必議寡人矣.)”고 했다. 이에 비의는 천하의 異議를 돌아보지 말고 의심 없이 추진하라고 하

1) 《周禮注疏》(《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2) 권33, 1009-1010쪽.

자, 무령왕은 “내가 胡服의 이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나는 천하가 그것을 비웃을까 두려운 것이다. ……세상사람 중에 나를 따르는 자는 胡服의 이로움을 알지 못할 것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음거리로 몰아가더라도 나는 胡地와 中山을 기필코 차지하겠다.(寡人非疑胡服也, 吾恐天下笑之. ……世有順我者, 則胡服之功未可知也. 雖驅世以笑我, 胡地中山吾必有之.)” 고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결국 胡服으로 갈아입고 조회에 나서려 한다. 그리고 자신의 숙부에게도 호복을 입어 줄 것을 권장하는데, 숙부인 公子成이 중화의 정통론을 들고 나오면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이에 왕은 직접 찾아가 호복의 실용론을 들고 숙부를 설득하면서 “숙부께서는 중국의 습속을 따르면서 簡王과 襄王의 염원을 거스르면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다는 명분으로 나랏일의 수치를 잊고 있으니 이것은 과인이 그대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오! (而叔也順中國之俗以逆簡襄之意, 惡變服之名, 而忘國事之恥, 非寡人所望於子.)”라고 질책 하면서 끝까지 호복으로 갈아입을 것을 고집하였다. 무령왕은 숙부인 공손성에게 호복을 하사했지만, 그는 끝내 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신하였던 趙文과 趙造가 의복에는 상규가 있으며 夷狄의 습속을 따를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고금의 습속이 다른데 어느 습속을 본받겠는가? 제왕의 업적을 받음이 서로 다른데 어느 예를 본받겠는가? ……의복이 기이하면 뜻이 어지럽다 하는데 그러면 鄒와 魯에는 기이하게 행동하는 자가 없는가? 습속이 邪僻하면 백성들을 바꾸라고 했는데, 吳越에는 뛰어난 백성이 없다는 말인가? (古今不同俗, 何古之法? 帝王不相襲, 何禮之循?)……且服奇而志淫, 是鄒魯無奇行也? 俗僻而民易, 是吳越無俊民也?)”²⁾라고 하며 이와 같은 반대론을 일축하면서, 호복으로 갈아입을 것과 말 타고 활쏘기를 장려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화세계 즉 중원에서 중화인들이 승마의 개념으로 말을 탔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화세계의 전체로 보았을 때

2) 王守謙等 譯注, 《戰國策今譯》, 貴州人民出版社, 1992, 544-559쪽.

이러한 騎馬의 습속은 중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니었음을 조 무령왕의 이야기에서 잘 짐작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습속을 쉽게 중국화했다면 秦의 통일이후 중원 역사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말은 이와 같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황제 개인의 신비한 힘이나, 불로장생을 위한 신적인 수단을 희구하는 조건으로도 필요했다. 중원의 태평성대, 즉 천자가 하늘의 명에 순종하여 백성을 잘 교화하면 상서로운 징조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神馬 또는 天馬가 나타났음을 史書들은 간간히 기록하고 있다. 이 신비로운 말의 현시여부는 왕권의 강화에 필수 조건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神馬들은 불로장생의 나라, 즉 천상의 세계로 가기위한 수단이 바로 날개 달린 천마의 모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마로서의 천마와 실제 우수한 말로서의 천마, 즉 한혈마의 의미를 고문헌 속에서 살펴보고 신마의 전설이 어떻게 한혈마로 구체화 되었고, 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그리고 고대와 중세 이전 중국인들에게 어떠한 환상과 전설을 만들어 갔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동서의 문화 교류의 구체적인 한 단면을 추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천마의 개념과 전설, 그리고 果下馬에 대한 연구의 초석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II. 神馬와 天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인 《爾雅·釋畜》에는 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체로 말의 몸체에서 흰색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回毛[가마]의 위치하는 곳에 따라, 말의 키에 따라, 암수에 따라, 털색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공자의 문인들이, 또는 周公이 지은 것이라고 하나 많은 후세인들의 보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만들어진 연대를 확정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체로 秦漢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秦漢시기에 이미 중원의

馬種은 매우 많았으며, 사육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평가하고 구분하는 방법들이 진한 이전에 비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釋畜> 마지막에 말의 용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묘에는 털이 같은 것을 쓰고, 군대에는 힘이 강한 것을 쓰며, 사냥에는 빠른 것을 쓴다.(宗廟齊毫, 戎事齊力, 田獵齊足.)”³⁾고 하였다.³⁾ 다시 말해 사냥에 빠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냥감을 몰기 위해서는 수레를 타고 간다는 의미 보다는 말을 타고 사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秦漢 시기에 이미 승마의 기술 역시 상당히 중원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마는 고대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그 형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신마란 신비스럽고 신령스러운 말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과연 이 신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일찍이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龍 그리고 水神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비스럽고 신령스러운 말의 출발은 바로 河圖의 고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周易正義·繫辭上》에 “황하에서 圖가 나오고 洛水에서 書가 나오니 聖인들이 이를 따랐다.(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⁴⁾라고 했다. 보는 바와 같이 원문에서는 무엇이 황하에서 圖를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鄭玄(127~200)은 《春秋緯》에 의거하여 “黃河에서 하늘과 통하는 天苞가 나왔으며, 洛水에서 坤을 흐르는 地符가 나왔다. 黃河의 龍이 圖를 보고 발동하였으며, 洛水의 고기들이 書를 보고 감응하였다. 河圖는 9편이 있으며, 洛書는 6편이 있다.(河以通乾出天苞, 洛以流坤吐地符. 河龍圖發, 洛龜書成. 河圖有九篇, 洛書有六篇也.)”라고 하였다. 圖를 지고 나온 것이 용이라고만 했지 말이란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尙書正義·顧命》에서는 “대옥, 이옥, 천구, 하도는 동쪽 편에 차례대로 놓는다.(大玉, 夷玉, 天球, 河圖, 在東序.)”⁵⁾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孔安國(서한, 공자의 11대손)은 ‘河圖’란 八卦로서 伏羲氏

3) 《爾雅注疏》(《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2) 권10, <釋畜>, 373-379쪽.

4) 《周易正義》(《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2) 권7, <繫辭上>, 341쪽.

5) 《尙書正義》(《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2) 권18, <顧命>, 591쪽.

가 천하를 다스릴 때 龍馬가 황하에서 나왔는데, 그 문양을 따라서 팔괘를 그렸다고 하여 하도라고 한다(王天下, 龍馬出河, 遂則其文以畫八卦, 謂之河圖)고 하면서 ‘龍’은 바로 ‘龍馬’라는 신마라고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禮記正義·禮運》에는 “그러므로 하늘은 윤택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달콤한 샘물이 나오며, 산에는 보배로운 그릇과 수레를 낳고, 황하에서는 말이 圖를 지고 나오며 봉황과 기린이 모두 들판에 있으며 거북과 용은 못의 궁전에 있고, 나머지 새와 짐승들의 알과 새끼를 여기저기에 볼 수 있는 것이다.(故天降膏露, 地出醴泉, 山出器車, 河出馬圖, 鳳凰麒麟皆在郊禰, 龜龍在宮沼, 其餘鳥獸之卵胎, 皆可俯而窺也.)”⁶⁾고 하면서 ‘馬圖’라고 언급하였는데 鄭玄은 ‘馬圖’란 龍馬가 圖를 지고 나온 것을 말한다고 했다. 또한 《論語注疏·子罕》에서는 “鳳鳥가 이르지 아니하고,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아니하니 내 이제 그만두리라.(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⁷⁾라고 했는데, 邢昺(932~1010)의 疏에 “하도 낙서는 거북이와 용이 물고 지고 나온 것으로, 《尙書中侯》에서 ‘용마는 甲을 물었는데 붉은 문양이 있고 녹색이었으며 갑은 거북등과 같았고, 크기는 9척이었으며 위에는 별자리들의 범도가 있는데 제왕이 흥망의 운수를 기록한 것이다.(鄭玄以爲, 河圖洛書, 龜龍銜負而出, 如中候說, 龍馬銜甲, 赤文綠色, 甲似龜背, 袤廣九尺, 上有列宿鬥正之度, 帝王紀錄興亡之數.)”라고 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살펴 보건대, 注나 疏를 제외하고 원문에는 河圖를 무엇이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명확하지 않고 다만 龍이라고 했을 뿐이다. 이 龍을 龍馬로 해석한 것은 후세의 경학자들이다. 한편 《論語注疏·子罕》에서 정현이 인용한 《상서》의 <中侯>라는 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으므로, 그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없지만, 대체로 龍과 馬를 결부시킨 것은 바로 서한과 동한의 경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왜 한나라 학자들은 龍과 馬를 결부시킨 것일까?

6) 《禮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2) 권22, <禮運>, 831쪽.

7) 《論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2) 권9, <子罕>, 129쪽.

신령스러운 것으로 따진다면 말보다는 용이 더 신비로운 모습을 가졌을 터이다. 그리고 물과 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지만 말이 물에서 나왔다는 발상은 매우 당황스럽다. 《周禮》에는 8척이상의 말을 용이라고 했다.⁸⁾ 이는 말이 자라면 용이 된다는 순수한 생각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말과 용은 머리가 비슷하고 짐을 싣는 것으로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므로 용과 말이 결합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중국의 고대인들은 말을 용과 연관 지으면서 말에 신비성을 가미하였다. 더 나아가 馬가 물에서 태어난다는 전설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전설속의 龍馬는 신비로운 동물로서 천하가 잘 다스려질 때 하늘이 감응하여 나타내 준다는 神馬로서, 신권과 왕권의 효과적인 결합으로서 나타났고 이러한 영물의 출현은 왕권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신마에 대한 열망과 전설은 漢代의 史書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史記·樂書》에는 “일찍이 악와수에서 신마를 얻어 다시 <太一之歌>를 지었다. 그 노래에 이르기를, ‘太一께서 천마를 아래로 내려 주시니, 붉은 땀을 흘리고 입거품은 붉네. 조용하게 달려도 만 리를 넘어가니, 어찌 필적할 것이 있겠는가? 용의 벗이로다.’”(又嘗得神馬渥洼水中, 復次以爲太一之歌. 歌曲曰, ‘太一貢兮天馬下, 霑赤汗兮沫流赭. 騁容與兮躔萬里, 今安匹兮龍爲友.’)⁹⁾라고 하였다. 이 기사는 앞에서 본 하도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신비로운 영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史記集解》에서 李斐는 “南陽 新野에 暴利長(포리장)이 무제 때 형벌을 받아 敦煌경계에서 둔전 살이를 했다. 여러 사람들이 자주 이 악와수에서 무리지은 야생마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기이한 말이 있었다. 다른 말들과는 달리 이 악와수에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포리장은 사람들에게 물가로 고삐와 밀치끈을 가지고 오게 하여, 말이 한참을 놀고 난 뒤에 사람들로 하여금 고삐와 밀치끈을 가지고 그 말을 잡아 현상하였다. 이 말을 신비롭게 하려고 물속에

8) 《周禮注疏》, 1018쪽.

9) 《史記》 권24, <樂書>, 1178쪽.

서 나왔다고 했다.(南陽新野有暴利長, 當武帝時遭刑, 屯田燉煌界. 人數於此水旁見羣野馬, 中有奇異者, 與凡馬異, 來飲此水旁. 利長先爲土人持勒鞵於水旁, 後馬玩習久之, 代土人持勒鞵, 收得其馬, 獻之. 欲神異此馬, 云從水中出.)”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渥洼水는 渥洼池로 현재 敦煌市南湖鄉 4km지점에 있으며 “黃水渠”라고 불린다. 李斐의 이러한 설명은 출현한 지리적 위치와 야생마라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漢書·武帝紀》에 “(元狩 2년, 기원전 121년) 여름에 말이 余吾水에서 나왔다.(夏, 馬生余吾水中.)”¹⁰⁾고 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기원전 121년에는 중국의 서북쪽에서 흉노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河西정벌을 감행하여 이듬해 하서지역의 흉노를 일소한 시기였다. 그리고 應劭는 이 여오수가 朔方の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바로 오늘날 몽골인민공화국 툴(Tuul)강을 말한다. 이곳은 기원전 97년 한무제의 명을 받은 李廣利, 路博德, 韓說, 公孫敖 등이 흉노군과 10여 일간 대치하였다가 전략상 후퇴한 곳이기도 하다. 두 기사 모두 말이 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나라의 위상과 한무제의 덕을 칭송하는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는 중원의 서북이나 북방에서 나는 말을 이렇게 신비한 전설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위진남북조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宋書·志·符瑞》에 “晉나라 孝武帝 太元 14년(389년) 6월 甲申일 1일에 寧州刺史 費統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寧州에서 관할하는 晉寧郡의 滇池縣에는 옛날부터 강물이 있는데 주위를 2백 여리 돌아갑니다. 6월 28일 辛亥일에 검고 흰 神馬 2필이 강물에서 홀연히 나와서 강안에 1백 보를 떨어져 있는 것을 현의 백성 董聰이란 자가 보았다고 합니다.’고 했다.(晉孝武帝太元十四年六月甲申朔, 寧州刺史費統上言, 所統晉寧之滇池縣, 舊有河水, 周回二百餘里. 六月二十八日辛亥, 神馬二匹, 一白一黑, 忽出於河中, 去岸百步. 縣民董聰見之.)”¹¹⁾

10) 《漢書》 권6, <武帝紀>, 1책, 176쪽.

이밖에도 상계서의 동일한 곳에는 “용마란 어진 말로서 河水의 정수이다. 키는 8척 5촌으로 목은 길고 날개가 있으며, 옆에는 드리운 털이 있고 울음소리는 아주 슬프다.(龍馬者, 仁馬也, 河水之精. 高八尺五寸, 長頸有翼, 傍有垂毛, 鳴聲九哀.)”라고 한 기록이 보이며, 또한 “騰黃은 神馬로 그 색은 누렇다. 왕이 덕으로 다스리면 사방에서 나타난다. 흰말에 붉은 갈기가 있는 말은 왕이 賢良한 사람을 등용하면 나타난다. 澤馬는 왕이 백성을 위해 수고로우면 이른다. 하나라 때 택마의 이름은 ‘騮’인데, 몸은 검고 흰 갈기와 꼬리가 있으며, 은나라 때 택마는 ‘駮’이라 했는데 흰 몸에 검은 갈기와 꼬리가 있었고, 주나라 때 택마 ‘駮(성)’은 붉은 몸에 검은 갈기와 꼬리가 있었다.(騰黃者, 神馬也. 其色黃. 王者德御四方則出. 白馬朱鬣, 王者任賢良則見. 澤馬者, 王者勞來百姓則至. 夏馬騮, 黑身白鬣尾, 殷馬駮, 白身黑鬣尾, 周馬駮, 赤身黑鬣尾.)”라고 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神馬는 하늘이 내려준 말로서, 물에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신마들은 임금의 덕치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하늘의 보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龍馬에 관한 기술에서 “키 8척 5촌으로 목은 길고 날개가 있으며.(高八尺五寸, 長頸有翼)”라고 한 설명은 이러한 신마가 물 그리고 용과 연관된 전설이 만들어 지게 된 연원이 중국적 관념이라기보다는 외래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周禮·夏官》에 “말이 8척 이상이면 용이 된다.(馬八尺以上爲龍)”¹¹⁾고 하였는데, 강물의 잉어, 바다의 고래, 연못속의 자라가 크게 되면 용이 된다는 전설들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목은 길고 날개가 있다(長頸有翼)”는 것은 바로 서양의 페가수스를 상기시키는데, 이는 당나라 고종의 무덤인 乾陵으로 가는 길에 늘어서 있는 천마석상보다 더 빠른 예일 것이다. 陳舜臣은 “의심할 것도 없이 그리스 신화속의 페

11) 《宋書》 권28, <志·符瑞>, 3책, 802쪽.

12) 《周禮注疏》, 1018-1019쪽.

가수스는 서방의 산물이다. 그러나 날개를 가진 천마는 줄곧 서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동방으로 유전되어 7세기의 당나라 장안에는 이미 이러한 페가수스의 석상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장안의 동쪽으로는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페가수스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¹³⁾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神馬와 연관된 중국의 기술에서 나타나는 신화들은 물과 날개는 서방의 영향으로 만들어졌고, 용이라는 중국적 영물이 가미되어 형성된 것이다. 말과 물에 관한 연관성에 관하여, 毛民은 그 주된 연원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초기 스키타이 유목민 예술의 영향, 고대 희랍의 말머리에 물고기 꼬리를 한 히포캠퍼스(Hippocampus),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발전한 祿敎에서 모시는 水神의 상징에서 비롯한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신비적이고 종교적 색채를 띤 신마의 전설들은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덕치로 교화하는 수단이었던 동시에, 실제 말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수단이었던 우량의 말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은 汗血馬라는 天馬로 구체화 되었고, 이러한 천마는 위에서 언급한 신마의 전설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戰國시대 趙나라 武靈王시기의 이야기에서 말 타는 기술과 더불어 북방 이민족들(스키타이 또는 흉노)의 말, 즉 몽골말들이 유입되었던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 파지릭(Pazyryk) 근처에 발견된 5기의 지하무덤[파지릭 쿠르간(Pazyryk Kurgans)]에는 69구의 완전한 말과 18구 이상의 말 유골 조각들이 동결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들 중 오래된 것은 기원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묻힌 사람들의 부장품 중에는 중국비단들과 중국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는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이 지역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중원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중국으로 몽골지역의 말들이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漢代의 말들은 대체로 이 지

13) 陳舜臣, 《西域餘聞》, 9쪽.

14) 毛民, <天馬與水神>, 《內蒙古大學藝術學院學報》, 11期(2007), 34-36쪽.

역의 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말들의 평균 키는 128~150cm로 작은 말에 속하는 것들로, 최근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의 야생마로 알려진 프르제발스키 말(Equus Prezewalskii Poliakoff)보다 약간 작은 것들이다.¹⁵⁾

한나라시기에 흉노와 충돌하면서 많은 양의 말이 필요했던 한무제에게 흉노와 같은 말을 타고 전투를 한다고 하여도 기마술에서 흉노를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흉노의 말보다 더 크고 힘센 전마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 張騫을 서역으로 떠나게 했던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다.

한나라는 기원전 139년을 즈음하여 흉노를 공략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흉노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비용을 감내해야 했었다. 이에 한나라는 이전 중국의 서북지역에 거주했던 月氏가 흉노에 밀려 페르가나 지역으로 몰려났던 大月氏와의 동맹을 통하여 흉노 공략을 도모하였고 이 목적에 맞추어 서역으로 사신길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장건이다. 장건은 천신만고 끝에 大宛, 大月氏, 大夏, 康居를 방문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5, 6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어 무제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대원은 흉노의 서남쪽, 한나라 정 서쪽에 있으며 한나라에서 약 1만 리 떨어져 있습니다. 풍습은 토착민이고 밭을 갈아 벼와 보리를 경작합니다. 포도주가 있고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피 같은 땀을 흘리고 그 말의 조상은 천마의 새끼라고 합니다. 성곽과 집이 있고 소속된 마을은 크고 작은 70여개의 성들이며 인구는 수십만입니다. 그들의 병장기는 활과 창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쏩니다.¹⁶⁾

15) H. G. Creel, <The Role of the Horse in Chinese History>, i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0, no.3(1965), 653쪽. 말의 키는 특별히 핸드(han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핸드는 4인치에 해당한다. 프르제발스키 말은 평균 13핸즈이고, 파지릭 쿠르간의 말들은 12.59핸즈이며, 오늘날의 말들은 15핸즈 정도 된다. 'Hand'는 말의 키를 재는 단위로 1핸드는 4인치(10.16cm)임.

16) 《史記》, 권123, <大宛列傳>, 10책, 3160쪽. 大宛在匈奴西南, 在漢正西, 去漢可萬里. 其俗土著, 耕田, 田稻麥. 有蒲陶酒. 多善馬, 馬汗血, 其先天馬子也. 有

이러한 장건의 왕래 이후로 서역과의 교역은 많아졌고 주로 말을 구입하기 위한 한나라 사신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물품을 구하기 위한 서북방 유목민들의 왕래도 빈번해졌다. 그 결과로 한나라 사람들은 먼저 烏孫지역으로부터 들어온 말들을 천마로 생각하여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왕래를 통하여 대원국의 貳師城에 있는 한혈보마의 존재를 알게 된 한무제는 대원국에 천마의 새끼인 한혈마가 있다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한혈마를 얻으려 했다. 한무제는 “千金과 金馬(청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으로 만든 것으로 보임)를 가지고 가서 대원왕에게 善馬를 구해오라”고 사절단을 파견했다. 대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력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한혈마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었고, 또한 한나라에서 제시한 金馬는 거래의 대가로는 너무 작았으며, 또한 한나라 사신들의 거만한 태도는 대원국의 극단적인 보복을 야기하면서 전쟁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 무리한 전쟁이 바로 李廣利의 2차에 걸친 대원원정(기원전 104년~102년)이다. 6만여 병사가 출발하여 돌아온 것은 1만여 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이는 실제 군량부족이나 전사자들이 아니라 장수와 관리들의 탐욕과 이사성에서 얻은 한혈마보다 병사를 아끼지 않은 결과였다고 사마천은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원정의 결실은 善馬(이사성에 감추어 두고 내주지 않았던 한혈보마로 보임) 수십 필과 中馬이하 3천 필을 얻어왔던 것이다.

장건이 죽은 후에 한나라의 최대 난적이었던 흉노는 한나라가 오손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손을 공격하려 하자 오손에서는 한나라에 말을 바쳤고, 한나라의 옹주를 아내로 맞이하며 동맹을 형성하려 했다. 한무제는 자신의 불로장생을 위해서이건 부국강병을 위해서이건 양마를 얻으려고 갈망했던 것 같다. 무제는 역경을 펴서 점을 치니 “신마가 서쪽으로부터 올 것이다.”고 한 점괘를 믿었던 모양이다. 오손의 좋은 말이 오자 ‘천마’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대원의 한혈마를 얻고 보니, 더욱 건장

城郭屋室。其屬邑大小七十餘城，衆可數十萬。其兵弓矛騎射。

하여 오손에서 온 말을 ‘西極’이라고 부르고 대원에서 온 말을 ‘천마’라고 불렀다.¹⁷⁾ 《史記·樂書》는 한혈보마를 얻은 한무제의 기쁨을 노래로 지어 부른 정황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

후에 대원을 정벌하고 천리마를 얻었는데, 그 말을 ‘蒲梢’라 하고 다시 노래를 지었다. 그 노래에 이르기를, “천마가 西極에서 와서는, 만 리를 지나 유덕한 임금님께 돌아 왔네. 신비로운 위엄을 받아 바깥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사막을 건너 四夷를 복속시키리.”라고 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中尉 汲黯이 간언하여 이르기를, “무릇 제왕이 노래를 짓는 것은 위로는 祖宗을 계승함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말을 얻으시어 詩를 써서 노래로 삼으시니 종묘에서 연주하고는 있지만 先帝와 백성들이 어찌 그 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임금께서는 시무록해져 기뻐하지 않았다. 승상 公孫弘이 “금암은 임금의 시가를 비방했으니 죽속을 멸해야 합니다.”¹⁸⁾

이상에서 神馬는 하늘이 임금의 덕치에 감응하여 내려주는 신적인 영험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었고, 한무제가 대원국의 이사성에서 한혈보마를 얻은 뒤에는 천마는 신마의 신적인 역할과는 별도로 피 같은 땀을 흘리는 말[汗血馬],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千里馬]로, 물론 그 수량은 많지는 않았지만 얻을 수 있는 실제 寶馬로서 왕실과 문인들의 찬미와 갈망은 그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신마로서 道家的 형상까지도 흡수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한무제가 악와수에서 얻은 신마를 노래하여 “霑赤汗, 洙流赭”라고

17) 自博望侯騫死后, 匈奴聞漢通烏孫, 怒, 欲擊之. 及漢使烏孫, 若出其南, 抵大宛大月氏相屬, 烏孫乃恐, 使使獻馬, 願得尙漢女翁主爲昆弟. 天子問群臣議計, 皆曰, 必先納聘, 然後乃遣女. 初, 天子發書易云, 神馬當從西北來. 得烏孫馬好, 名曰“天馬”. 及得大宛汗血馬, 益壯, 更名烏孫馬曰, “西極”, 名大宛馬曰, “天馬”云.

18) 《史記》 권24, <樂書>, 1178쪽. 后伐大宛得千里馬, 馬名蒲梢, 次作以爲歌. 歌詩曰, “天馬來兮從西極, 經萬里兮歸有德. 承靈威兮降外國, 涉流沙兮四夷服.” 中尉汲黯進曰, “凡王者作樂, 上以承祖宗, 下以化兆民. 今陛下得馬, 詩以爲歌, 協於宗廟, 先帝百姓豈能知其音邪?” 上默然不說. 丞相公孫弘曰, “黯誹謗聖制, 當族.”

하였던 말의 실제 대상은 길조의 표현이었던 신마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서북방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마 또는 그 지역 유목민들에 의해 사육되고 있던 말이었던 것이다. 한무제는 이를 통하여 덕치의 세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천마를 획득했다는 것으로 한나라의 위상과 자신의 위엄 그리고 그 교화를 널리 퍼려고 했고, 그 말을 타고 불로장생의 하늘나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믿고 싶었던 것이다.

Ⅲ. 汗血馬의 형상과 문학

伏波將軍 馬援은 “하늘을 나는데 있어서 용만한 것이 없고, 땅을 다니는데 있어 말만한 것이 없다. 말은 군대의 기본이요 국가의 큰 쓰임이다. (夫行天莫如龍, 行地莫如馬. 馬者甲兵之本, 國之大用.)”¹⁹⁾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좋은 말을 고르는 相馬法의 한 수단으로 馬式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소하는 글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과연 어떤 말을 가지고자 했으며 어떤 말을 기준으로 말의 좋고 나쁨을 폄평하였나?

周穆王의 八駿(絶地, 翻羽, 奔宵, 越影, 逾輝, 超光, 騰霧, 挾翼), 驊騮·綠耳·盜驪·騏驎·絳離, 雷首良馬, 翠龍, 時龍*, 紫燕*, 玉馬, 駮驥*, 驪驪, 沙丘馬*, 秦始皇 七駿(趕流行, 白兔, 躡景, 追電, 飛翮, 銅爵, 晨鳧)*, 駃騠*, 駒酴*, 楚騅, 九逸(浮雲, 赤電, 絶群, 逸群, 紫燕騮, 祿螭驄, 龍子, 嶙駒, 絶塵)*, 蕭稍*, 象龍*, 步景, 黃門四駿(蒲稍, 龍文, 魚目, 汗血)*, 大驪, 赤兔*, 的盧, 絶影, 白鶴, 紫駢(성), 驚帆, 揚武, 赭白*, 赤龍駒*, 赤蛇, 龍驤, 閃電, 青海驄*, 獅子驄*, 忽雷駮, 決波瑜, 十驥(騰霜白, 皎雪驄, 凝驄, 懸光驄, 洪波瑜, 飛霞驪, 發電赤, 流星駒, 翔麟紫, 奔虹赤)*, 昭陵六駿(青騅, 什伐赤, 特勒驪, 颯露紫, 拳毛騮, 白蹄烏)*, 黃驄驪*, 蹀馬, 太原異馬, 龍子, 紅玉·紫玉·平山·凌雲·飛香·百花輦(紅叱撥·紫叱撥·青叱撥·黃叱撥·丁香

19) 《後漢書》 권24, <馬援列傳>, 3책, 840쪽.

叱撥·桃花叱撥)*, 九花虬, 照夜白, 寧遠馬, 玉花驄, 望雲驄, 黃驄, 玉逍遙, 碧雲霞, 元佑三馬*, 義瑜, 등등이 중국 고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마들의 이름들이지만, 이들은 주로 말털의 색깔과 말의 빠르기를 기준으로 붙여진 이름이거나 외래어에서 음역한 표현들을 알 수 있다. 인류에게 말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었느냐가 말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없다. 여기에는 그 말이 전쟁용인가, 견인용인가, 또는 승마용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중국인들에게 오래 빨리 달리는 말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었던 것 같다. 빨리 오래 달리는 말에다 소금수를 지워 끌게 할 수는 없으니, 그 말을 어떤 말인지 먼저 알아보는 방법은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말을 기준으로 마치 사람의 관상과 마찬가지로 외형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명마들 중에서 ‘*’를 해둔 이름들은 모두 중국의 서북지역, 중앙아시아의 말들, 그리고 한혈보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중국의 명마들이 대체로 천마 또는 한혈보마가 준마, 명마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혈보마의 특징과 형상은 어떠한지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東漢의 천문, 수학, 지리학자 겸 詩賦家로 알려진 張衡(78~139)은 <東京賦>, “비림은 몸을 틀고 있고 천마는 치달을 듯하네.(龍雀蟠蜿, 天馬半漢.)”²⁰⁾라고 했다. 薛綜(?~243)은 여기서 말하는 ‘龍雀’은 ‘飛廉’을 말하는 것이고, ‘天馬’는 ‘銅馬’를 가리킨다고 했으며 ‘蟠蜿’과 ‘半漢’은 모두 형용하는 말이라고 했다.(龍雀飛廉也, 天馬銅馬也. 蟠蜿半漢皆形容也.) 또한 李善은 華嶠의 <後漢書>를 인용하여, “明帝(58~75재위)는 장안에 이르러 비림과 동마를 가지고 와서 [낙양의] 상서문, 평락관에 설치하였다.(明帝至長安, 迎取飛廉并銅馬, 置上西門平樂觀也.)”라고 주하였다. 이 銅像은 원래 서한의 수도였던 장안의 미양궁에 있었다. 그래서 이 像이 있는 곳을 金馬門이라고 불렀고, 이곳은 한무제 때 신하들이 천자의 부름을 받고 대기하

20) <文選> 권3, 1책, 105쪽.

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한무제가 서역의 천마를 얻어 주조한 동상으로 추정되는데, 황금도 아닌 銅으로 상을 주조하면서 실제 천마보다 크면 컸지 작게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 금마문은 수많은 한나라의 문인들이 출입하면서 이 천마상을 보았을 테지만 남아 있는 기록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 辭賦家들의 문학 적 특징인 과장과 화려한 수식, 그리고 장황한 서술법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천마상은 그다지 언급할 만한 특이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또한 말은 국가의 군사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 언급이 통제되었을 수도 있고, 천마의 희소성 때문에 문인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다.

한나라 시기의 천마의 크기를 추정해볼 수 있는 것으로, 낙양의 宣德殿에는 또 다른 銅馬가 있다. 이 동마는 말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위 ‘馬式’이었다. 이 동상은 동한 초기 交趾의 반란을 평정하고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청동북을 녹여 만든 것으로 伏波將軍으로 알려진 馬援(기원전14~기원후49)이었다. 《後漢書·馬援傳》에 “키는 3척 5촌이요 둘레는 4척 5촌이다(馬高三尺五寸, 圍四尺四寸)”고 했다. 이 기술대로라면 동한시기의 1尺은 약 23cm에 해당하므로 이 동마의 키는 80cm에 불과하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소위 조랑말이라고 하는 포니는 143cm이하를 지칭한다. 이는 이 동상이 ‘馬式’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크기보다 작아야 말을 품평할 때 유리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漢武帝 茂陵博物館, 陝西省 興平縣, 豆馬村에서 출토된 銅馬가 소장되어 있는데, 같이 발굴된 馬具들을 분석한 결과 수레를 위한 𨔵는 말로 대원마의 사실적 모형이라고 한다.²¹⁾ 키는 62cm이고 길이는 76cm로 두 귀 사이에는 뿔 모양의 벼슬이 있다. 크기로만 말한다면 이 역시 마원의 馬式과 비슷한 크기로 실제 천마의 크기를 확인할만한 기록이나 유물은 없다.²²⁾ 만약 이들이 천마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21) 毛民, <天馬與水神>, 32쪽.

22) 이밖에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銅馬로는 감숙성 武威 電臺에서 한 구의 ‘청동으로 만든 달리는 말[銅奔馬]’가 출토되었는데 높이가 34.5cm이다. 뒷다

다 성숙한 말보다는 앞으로 크게 자랄 유망한 새끼였을 가능성이 크다.

천마, 한혈보마의 크기에 있어서 비밀은 그 특징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지만 한혈마의 특징 역시 개괄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혈마를 보마로 오늘날까지 인식되고 있는 까닭일 지도 모른다.

우선 위에서 보았던 한무제의 <天馬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漢書·禮樂志》에는 한무제가 천마를 2차례 노래한 가사를 수록하고 있다. 첫째 元狩 3년(기원전120) 악와수에서 천마를 얻고 지은 노래는 이러하다.

태일께서 천마를 내려 주셨네.	太一況, 天馬下.
붉은 땀에 젖었고 붉은 입 거품을 흘리네.	霑赤汗, 沫流赭.
뜻은 拔群이며, 힘은 변화무쌍하네.	志倣儼, 精權奇.
구름을 밟고 서서 신속하게 달리네.	籊浮雲, 晻上馳.
몸은 편안한 듯 해도 만 리를 넘어가네.	體容與, 逝萬里.
지금 무엇이 필적하리? 용이 벗을 삼네.	今安匹, 龍爲友.

둘째로 太初 4년(기원전 101)에 대원왕의 목을 베고 얻어온 대원마를 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천마가 서극에서 왔네.	天馬徠, 從西極.
사막을 건너 九夷를 복속시키리.	涉流沙, 九夷服.
천마가 샘물에서 나왔네.	天馬徠, 出泉水.
호랑이 등과 같고 변화는 귀신같네.	虎脊兩, 化若鬼.
천마가 황무지를 지나 왔네.	天馬徠, 歷無草.
천리 길을 거쳐 동쪽 길로 따라왔네.	徑千里, 循東道.
천마가 歲星이 辰에 있을 때 왔네.	天馬徠, 執徐時.
분발하여 높이 나니 누가 기약했으리요?	將搖舉, 誰與期.

리에 제비 같은 조류를 밟고 있는 것을 보아 천마의 모습을 묘사해 낸 것으로 보이지만, '馬式'으로 보기에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아마도 애완 장식품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천마가 멀리서 문을 열고 왔네.	天馬徠, 開遠門.
나의 몸을 실어 곤륜산으로 가겠지.	竦予身, 逝昆侖.
천마가 용의 매과로 왔네.	天馬徠, 龍之媒.
하늘 문에서 노닐며 玉臺를 보겠네.	游閭闔, 觀玉臺. ²³⁾

이상에서 우리는 악와수에서 얻은 말이나 대원왕을 베고 가져온 천마나 같은 한혈보마를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천마들은 붉은 땀[赤汗]과 붉은 입거품[赭沫], 호랑이 등[虎脊]을 가지고 있고, 어두울 때도 달릴 수 있으며, 구름에 떠 날 듯이 달린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들 천마는 바로 河水에서 圖를 지고 나온 龍馬로서, 용의 벗[龍友]이자 용의 매과[龍媒]라고 믿고 있다. 이제 무제 자신도 이 천마를 타고 하늘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배어있다.

한무제의 두 번째 노래에서 ‘虎脊’이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호랑이 등이라는 뜻이다. 이것만으로는 호랑이 등처럼 강한 것을 의미하는지 호랑이와 같은 문양을 가졌다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李白의 <天馬歌>를 보면, “등에는 호랑이의 문양과 용의 날개 뼈가 있네(背爲虎文龍翼骨)”라고 하였으니, 천마인 한혈마의 등은 단일한 털색의 가죽이 아니라 호랑이 등가죽에 있는 줄 문양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龍翼骨’이란 표현은 역대학자들의 주석이 없다. 글자그대로 보면 용의 날개 뼈란 뜻으로 천마를 좀 더 신비롭게 표현하기 위해 붙인 단순한 수식어인지, 아니면 용의 날개가 퇴화하여 형성된 뼈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만 사람이나 동물의 척추 뼈를 脊骨이라 하고, 등뼈 양쪽에 있는 근육질의 두 등줄기를 雙脊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을 탈 때 아주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승마자들의 많은 예찬을 받았다고 한다.²⁴⁾ 이백은 등에 이러한 용의 날개 뼈가 있다고 했으므로 아마도 이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3) 《漢書》 권22, <禮樂志>, 4책 1060-1061쪽.

24) 베르길리우스(Vergilius), *Georgica III*, 87에서 “At duplex agitur per lumbos spina”라고 하였음.

《史記集解》에서 應劭는 “대원국에는 예부터 천마의 종자가 있었는데 돌을 밟고 피 같은 땀을 흘린다. 땀은 앞쪽 어깨에서 피 같이 흘러나오며,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한다.(大宛舊有天馬種, 蹋石汗血, 汗從前肩膊出如血, 號一日千里.)”고 한혈보마의 특징을 서술했다. 또한 顏師古의 주에 따르면 “蹋石이란 돌을 밟으면 발자국이 남는다는 것을 말함인데 그 말굽이 강하고 예리함을 말하는 것이다.(蹋石者, 謂蹋石而有跡, 言其蹏堅利.)”라고 했다. 그리고 杜甫는 <高都護驄馬行>에서 “腕(가슴에 붙어 있는 앞다리 허벅지 윗부분)은 짧고 말굽은 높아 쇠를 밟고 있는 듯하여, 交河에서 몇 번이나 얼음을 차 부숴던가?(腕促蹄高如踏鐵, 交河幾蹴層冰裂)”라고 했는데, 仇兆鰲는 《相馬經》을 인용하여 “말의 腕은 짧아야 하고 짧으면 튼튼하며, 말굽은 높아야 하는데, 높으면 험준함을 견뎌낸다.(馬腕欲促, 促則健, 蹄欲高, 高耐險峻.)”고 하였고, 後魏 賈思勰의 《齊民要術》에는 “말의 腕은 짧으면서 커야하는데, 그 사이에 겨우 밀치끈이 들어갈 정도여야 하며, 말굽은 두께가 2, 3寸이 되면 강하기가 돌과 같다.(馬腕欲促而大, 其間纔容鞵, 蹄欲得厚二三寸, 硬如石.)”²⁵⁾라고 하였다. 이로서 높은 말굽과 가슴에 붙어 있는 앞다리 허벅지 윗부분[腕]이 짧은 것 또한 한혈마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무제의 <天馬歌>에서 묘사된 특징 이외에 언급할 만한 것은 바로 피 같은 땀을 흘리는 신체부위가 명시되어 있고, 돌에 발자국이 생길 정도로 강한 말굽을 가졌으며, 그 말굽은 높아야하고 腕은 짧아야 하며,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²⁶⁾

25) 《杜詩詳註》 권2, 87쪽.

26) 천리마란 표현은 《楚詞·卜居》: “차라리 천리를 달리는 말같이 살 것인가? (寧昂昂若千里之駒乎)”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래로 중국고문헌 속에서 수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천리마의 자의적 해석은 낮에는 천리를 달릴 수 있고 밤에는 8백리를 달린다는 良馬란 뜻이다. 광활한 대륙에 이동수단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에게 이렇게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말로서 천리마는 일반적으로 좋은 말을 범칭 했다. 여기에서 천리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오늘날 하루에 5백km를 달릴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천리마는 실제로 천리를 달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주나라 시대 1리는 298.65m이

《晉書·符堅傳上》에서 “대원국에서 천마인 천리마 새끼를 헌상하였는데, 모두 피 같은 땀을 흘리고, 붉은 갈기를 가지고 있으며,五色이고, 봉황의 가슴과 기린의 몸을 하고 있으며 일반 보통 말과 진기하고 다른 것이 500여 가지나 되었다. 부견이 말하기를 ‘나는 漢文이 천리마를 돌려보낸 것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감탄스럽다. 지금 헌상한 말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는 것은 前王을 능히 기억하고 古人을 본받고자 함이다.’라고 했다. 이내 군신들에게 <止馬詩>를 지어 보내도록 하여 욕심이 없음을 표하였다. 아래 관리들이 이를 盛德한 일로 생각하여 시를 지어 올린 자가 400명이었다.”²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한혈의 천리마가 일반 말에 비하여 500여 가지나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앞서 본 특징들 이외에 일반적인 말과 비교하여 어떤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있을까?

顏延之(384~456)의 <赭白馬賦>는 宋文帝(劉義隆)의 아버지인 武帝(劉裕)가 총애했던 赭白馬를 文帝가 中郎將을 지내던 시절에 받게 되는데, 이후 문제가 즉위하고 이 말이 늙어 죽자 이를 슬퍼하여 군신들에게 이 말을 위한 賦를 짓도록 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 말의 털은 적색과 흰색이 서로 섞여있는 駿馬라고 한다. “말의 앞가슴엔 붉은 땀방울이 일고, 땀구멍에서는 피가 나온다.(膺門沫赭, 汗溝走血.)”고 하였고, “아침에는 幽와 燕 땅(현 河北 북부와 遼寧 일대)에서 말을 씻고 저녁에는 荊과 越 땅(湖北, 浙江 일대)에서 꼴을 먹인다.(旦刷幽燕, 晝秣荊越.)”라고 하는 것을 보아

고, 1000리는 298.65km이다. 낮을 12시간으로 계산해보면 매시간 24887.5m를 달려야 가능한 거리이다. 그러므로 천리란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주 뛰어난 지구력을 가진 양마라는 뜻이다. 고대 초원에는 이러한 거리를 주파하는 야생의 말이 있었을 수도 있다. 매시간 25km를 8시간 달리고 3시간은 쉬다고 해도 이것은 수레나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길이의 단위가 오늘날과 다르며, 말들이 가축화되면서 야생적 습성을 상실한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여정을 달리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27) 《晉書》 권123, <符堅傳上> 9책, 2900쪽. “大宛獻天馬千里駒, 皆汗血, 朱鬣, 五色, 鳳膺, 麟身, 及諸珍異五百餘種. 堅曰, 吾思漢文之返千里馬, 咨嗟美詠. 今所獻馬其悉返之, 庶克念前王, 髣髴古人矣. 乃命羣臣作止馬詩而遣之, 示無欲也. 其下以爲盛德之事, 遠同漢文, 於是獻詩者四百餘人.”

자백마는 위에서 말한 한혈보마, 즉 천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연지는 이 천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보기만 해도 이 말은 골격이 돌출하고 근육이 두드러졌으며, 꼬리는 아래로 드리웠고 갈기는 곳곳이 서있다. 두 눈은 두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듯이 맑고, 두 볼은 둥근 달고 어울리네.(徒觀其附筋樹骨, 垂梢植髮. 雙瞳夾鏡, 兩權協月.)²⁸⁾

여기에서 ‘附筋’이란 다리 근육이 발달하여 불룩 튀어 나온 것을 말한다. 바로 李白이 <天馬歌>에서 “가슴은 두 마리 오리 같으며(臆雙鳧)”²⁹⁾라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樹骨’이란 군더더기 살이 없이 근육질로 마른 골격을 말한다. 그래서 두보는 <房兵曹胡馬>에서 “칼날의 모같이 마른 골격을 갖추었네.(鋒稜瘦骨成)”³⁰⁾라고 묘사하였다. 또한 ‘垂梢’에서 ‘초’는 말 꼬리를 말하므로 꼬리가 늘어진 것을 말한다. 즉 <<神異經>> 大宛馬조목에서 “갈기는 무릎에 이르고 꼬리는 땅까지 늘어진다.(鬣至膝, 尾委於地.)”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植髮’에서 ‘발’은 이마위의 털을 가리키는데, 이마위의 털이 곳곳하게 서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雙瞳夾鏡”라고 한 것에 대해 이선은 <<相馬經>>의 원문과 주를 인용하여 ‘눈에 사람의 모습을 다 비추는 말은 천리를 간다.’고 하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 사람의 모습을 다 비춘다는 것은 동자 가운데를 보면 사람의 머리와 발이 모두 보인다는 것으로 눈이 맑고 깨끗하여 거울과 같음을 이룸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두 눈의 중앙에 가마 같은 것이 거울과 같다고 한다.(目成人者行千里, 注云, 成人者, 視童子中, 人頭足皆見, 言目中清明如鏡. 或云, 兩目中央旋毛爲鏡.)”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두보의 <驄馬行>에서 “각진 눈은 푸르게 빛나 두 개의 거울이 걸려있는 듯 하고(隅目

28) <<文選>> 권2, 624쪽.

29) 瞿蛻園等 校注, <<李白集校注>>, 臺北, 里仁書局, 1981. 234-238.

30) 이영주·박석·이석형·김만원·김성곤 역해, <<두보(초기시 역해)>>, 52쪽.

靑熒夾鏡懸)”³¹⁾하는 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兩權協月”에서 ‘權’은 광대뼈(頰權)란 뜻으로 李善은 다시 《相馬經》을 인용하여 “광대뼈가 걸린 璧처럼 둥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雙璧이라 하고 그 가운데가 달처럼 채워져 있는데 이것이 異相의 표시이다.(頰欲圓如懸璧, 因謂之雙璧, 其盈滿如月, 異相之表也.)”고 설명했다.

한편 《太平御覽》 권793, <大宛>조목에서는 판권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異物志》라는 類書를 인용하여 “대원마는 벼슬 같은 뿔이 수 寸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춤을 추며 북의 박자에 맞출 줄 알았다고 한다.(大宛馬有肉角數寸, 解人語, 及知舞與鼓節相應.)”³²⁾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肉角’은 바로 ‘肉(鬣, 鬃, 鬃)’을 말한다. 《新唐書·五行志》, <馬禍>조목에는 말이 뿔이 난 변종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일로 보고 있다. “개원 12년 5월, 太原에서 이상한 망아지를 현상하였는데, 양쪽 갈비가 각각 16개요, 꼬리에는 털이 없었다. 25년 濮州의 한 망아지는 벼슬 같은 뿔[肉角]이 있었다. 29년 滑州刺史 李邕이 말을 바쳤는데, 肉鬣에 기린가슴을 하고 있었으며, 우는 소리가 말 같지 않았고, 하루에 3백리를 갔다.(開元十二年五月, 太原獻異馬駒, 兩肋各十六, 肉尾無毛. 二十五年, 濮州有馬生駒, 肉角. 二十九年三月, 滑州刺史李邕獻馬, 肉鬣鱗臆, 嘶不類馬, 日行三百里.)”³³⁾고 했다. 하지만 두보는 驄馬를 노래하면서 “살 갈기는 우뚝 서있어 이어진 엽전들이 움직이는 듯하다.(肉驄礮礮連錢動)”라고 하였다. 갈기란 말의 목 위에 난 털을 지칭하므로 육종이란 목 위에 특이하게 돌출한 벼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仇兆鰲는 杜田의 《補遺》를 인용하여 “동과가 말하기를 내가 岐下하에 있을 때에 秦州에서 말 한 마리를 진상하였는데, 갈기가 소의 목살이 늘어져 측면으로 전도되어 있는 것 같았고 털은 그 살 끝에 자라있었다. 변방인들은 이 말을 肉驄馬라고 했다.(東坡云, 余在岐下, 見秦州進一馬, 驄如牛項垂胡, 側

31) 《두보(초기시 역해)》, 718쪽.

32) 《太平御覽》 권793, 중화서국, 1995(5판), 3517a.

33) 《新唐書》 권36, <五行志>, 馬禍조목, 3책, 953쪽.

立顛倒, 毛生肉端. 蕃人云, 此肉駿馬也.)”고 설명하였다.³⁴⁾ 이러한 肉鬣의 존재 여부는 李筌(唐 代宗때 河東節度使를 지냄)의 《太白陰經·相馬篇》에 “귀 뿌리 아래에 뿔 길이가 1, 2寸인 말은[천리를 간다](耳本下角長一二寸者)”³⁵⁾고 한 것과, 劉基(1311~1375)의 《多能鄙事》 권7, <相馬法> 조목에 “귀 뿌리 아래 뿔이 나 있는데 그 길이가 1촌인 말은 3백리를 가고 3촌인 말은 천리를 간다(耳本下生角一寸, 三百里, 三寸, 行千里.)”³⁶⁾고 한 것으로부터 肉角, 肉鬣, 肉冠 같은 것이 있어 천마의 특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보는 <房兵曹胡馬>에서 대원마의 귀를 “대나무를 깎은 듯 두 귀는 쫓긋하고(竹批雙耳峻)”라고 하며 대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齊民要術》에 《相馬經》을 인용하여 “귀는 예리하고 작으며 대통을 깎은 것과 같아야 한다.(耳欲銳而小, 如削筒.)”고 설명하였으니, 역시 천마는 작은 귀에 대통을 잘라놓은 듯 쫓긋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천마, 즉 한혈마의 외형적인 특징들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호랑이 등에 보이는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붉은 땀과 붉은 입거품을 흘리며, 근살 없는 깡마른 근육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돌 위에 발자국을 남길 정도의 강한 발굽을 가지고 있었고 짧은 腕을 가졌기에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 또한 사람의 모습을 거울 같이 비출 정도로 맑고 깨끗한 눈을 가졌고, 이마위의 털은 곳곳하게 서있으며, 광대뼈는 달처럼 둥글었고, 두 귀는 대나무 통을 깎아 놓은 것처럼 쫓긋했으며, 갈기는 주로 붉은 색으로 매우 길었다. 귀 뿌리에는 肉鬣이라고 하여 특이하게 돌출한 벼슬 같은 것이 있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말의 동물학적 귀속은 어렵다. 다만 서구의 학자들은 오늘날 투르크말의 혈통 속에서 그

34) 《杜詩詳註》 권4, 1책, 257쪽.

35) 李筌, 《太白陰經》 권3, <相馬篇>, 《文淵閣四庫全書》.

36) 劉基, 《多能鄙事》 권7, 相馬法조목, 《續修四庫全書》, 1185책, 83쪽. 《齊民要術》 권6에는 “□一寸, 三百里, 三寸, 千里”라고 되어 길이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나 李筌과 劉基의 언급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고, 長沙의 漢墓에서 출토된 《相馬經》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추형을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라이데커는 이렇게 기술했다.

튀르크만 또는 튀르크 말은 비록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소아시아에 분포하고 있지만 그들의 원고장인 투르크스탄이란 지명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이들 중에는 여러 種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품종은 이랄호, 시르다리아의 남쪽 또는 옥서스 지역에 서식한다. 키는 15~16헨즈에 달하고 강한 지구력을 가진 이러한 말들은 크고 우뚝한 코를 가진 머리, 가늘고 움푹 들어간 목, 섬세한 몸체 그리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밤색 또는 회색이지만 그들 중 약간은 검은 몸체에 흰 말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들의 속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분명 몽골초원의 작고 빠른 야생마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는 토착종과 교배된 아랍혈통의 말에서 기인한 것이다.....³⁷⁾

IV. 나가면서

이상에서 우리는 천마, 즉 한혈보마의 외형적인 특징을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여 추적하여 보았다. 歷代로 수많은 문인들이 천마를 노래하였지만, 그 특징을 명확하게 언급한 자료는 드물다. 이는 한혈보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보유한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광리가 2차에 걸친 대원원정에서 얻어온 善種의 한혈마는 수십 필에 불과했었다. 이러한 희귀성은 중국 천자나 그의 보호아래 있었던 문인들로 하여금 천마와 신마 대한 문학적 결합을 만들어 주었다. 한나라 무제의 <天馬歌>는 이러한 전통을 만드는 선구적 작품이었다. <<論語·憲問>>에서는 “공자가 말하기를, ‘천리마는 그 힘으로 칭송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품덕으로 칭송된다.(子曰, ‘驥不稱其力, 稱其德也.’)”³⁸⁾라고 하였듯이 천마, 천리를 달리는 말은 그 말이 가지는 神性에 의해 예찬된다는

37) 라이데커(R. Lydekker), *The Horse and Its Relatives*, New York, 1912, 148쪽.

38) <<論語注疏>> 권14, <憲問>, 225쪽.

말이다. 이는 顏延之가 <赭白馬賦>에서 “천리마는 힘으로 칭송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용마로서 이름을 떨친다. 어찌 국가의 위용을 드러내고 군마가 신속한데 그치겠는가? 실로 광채를 내며 팔괘도를 지고 나와 賢德에 보응하는 증험인 것이다.(驥不稱力, 馬以龍名, 豈不以國尙威容, 軍馱趨迅而已, 實有騰光吐圖, 疇德瑞聖之符焉.)”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결국 “한나라의 도가 형통하여 천마가 그 재주를 드러냈고, 魏나라의 덕이 성해지자 澤馬가 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특출한 신마들은 이전 시대로부터 번갈아 출현하였다. 하늘이 감응을 보이는 경전도서에서 광채를 드러내니 악부의 郊祀歌에 들게 되었다.(漢道亨而天驥呈才, 魏德林而澤馬效質. 伊逸倫之妙足, 自前代而間出. 并榮光於瑞典, 登郊歌乎司律.)”라는 혼란한 시대를 접고 태평성대를 꿈꾸는 궁극적인 갈망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天馬에게는 천자의 仁政이나 德治를 증명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 이후 위진 남북조시대에는 남조와 북조가 각각 서역과 교역하면서 어느 정도의 천마인, 한혈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위에서 본 <문선>의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혼란시기를 통합한 당나라는 건국 당시 5천 필의 말 뿐이었다고 한다. 돌궐의 위협으로 강력한 기마부대의 창설을 필요로 했던 당나라의 입장에서 말의 사육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 되었다. 그 결과 70만 마리에 달하는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역의 말에 대한 요구는 그치지 않았다. 이는 善種의 한혈마는 그 숫자가 증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종의 한혈마는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역의 특산으로 중원에서는 육종해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무제 시절 이들 말의 먹이였던 苜蓿이란 풀을 들여왔다는 사실부터 한혈마의 사육과 순종 혈통의 유지는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唐代로 접어들면서 이민족의 문물에 대한 개방적 정책으로 아랍세계, 중앙아시아, 동남아, 한반도 등에서 다양한 말들이 유입되었고, 그 만큼 문인들이 말을 접하는 기회는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당대에는 말을 타고 하는 打毬를 즐길 정도가 되었으니,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

배종들이 사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어떠한 말을 가졌느냐 그리고 어떠한 말이 좋은 말인가에 대한 馬種의 선택이 당대인들의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송나라에 들어오면서 10만에 달하는 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0명중 한둘만이 말을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주자학의 완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송나라 정치인들은 국방 문제에 있어서 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기마술과 사육술을 비축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한무제, 당태종과 같이 황실에 말 마니아가 없었던 것도 한혈마가 많이 보이지 않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대 비단이 말과의 주요 교환수단이었다면, 宋代로 접어들면서 유목민에게 비단보다는 茶가 주요 교역품이 되면서 차마무역이 활성화 되지만, 그 만큼 중국적 산물들이 유목민들의 말보다 그 가치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한혈마의 희귀성은 천마를 더욱 神馬化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만들었으며 천마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당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 결과로 몽골에게 영토를 내어준 중원에는 서역보다는 몽골의 말이 대량으로 수입되었고 그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중앙아시아의 汗血馬는 자취를 감추었고 신마로서, 천마로서 몇몇 문인들의 전통 속에 간혀버렸다.

<參考文獻>

- 《史記》, (漢)司馬遷撰, (南朝宋)裴駟集解, (唐)司馬貞索隱, (唐)張守節正義, 十冊, 北京, 中華書局, 1959.
- 《漢書》, (漢)班固撰, (唐)顏師古注, 十二冊, 北京, 中華書局, 1962.
- 《後漢書》, (南朝宋)范曄撰, (唐)李賢等注, 十二冊, 北京, 中華書局, 1965.
- 《三國志》, (晉)陳壽撰, (南朝宋)裴松之注, 五冊, 北京, 中華書局, 1959.

- 《晉書》, (唐)房玄齡等撰, 十冊, 北京, 中華書局, 1974.
- 《宋書》, (梁)沈約撰, 八冊, 北京, 中華書局, 1974.
- 《魏書》, (北齊)魏收撰, 八冊, 北京, 中華書局, 1974.
- 《新唐書》, (宋)歐陽修 宋祁撰, 二十冊, 中華書局, 1974.
- 《十三經註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 蕭統, 《文選》(6冊), 上海古籍出版社, 1986.
- 仇兆鰲注(清), 《杜詩詳註》, 中華書局, 1999(제5판)
- 李筌, 《太白陰經》, 《文淵閣四庫全書》.
- 劉基, 《多能鄙事》, 《續修四庫全書》, 1185冊, 上海古籍出版社.
- 瞿蛻園等 校注, 《李白集校注》, 臺北, 里仁書局, 1981.
- 李昉等, 《太平御覽》, 中華書局, 1995(5판).
- 이영주·박석·이석형·김만원·김성곤 역해, 《두보(초기시 역해)》, 숲, 1999.
- R. Lydekker, *The Horse and Its Relatives*, New York, 1912.
- Edward H. Schafer,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Berkley and L.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楊泓·鄭岩·杭侃 등 저, 《馬的中國歷史》, 香港, 商務印書館, 2008.
- 陳舜臣, 《西域余聞》, 東京, 朝日新聞社, 1984.
- H. G. Creel, <The Role of the Horse in Chinese History>, i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0, no.3(1965).
- 毛民, <天馬與水神>, 《內蒙古大學藝術學院學報》, 11期(2007),
- 王立, <汗血馬的跨文化信仰与中西交流——《汗血馬小考》文獻補正> 《文史雜誌》, 2002,(05).
- _____, <汗血馬, 中西交流与豪俠英雄氣概>, 《福州大學學報》, 2007(02).

<Abstract>

“The Images of Heavenly Horse and Blood-sweating Horse Shown in Ancient Chinese Texts”

In ancient China, the appearance of horse was intrinsically associated with rivers and dragons. The horse had spirituality no less than practicality. The notion that the horse appeared in river did not come from the Chinese tradition but foreign. In the same manner, the horse that ancient Chinese were anxious to possess was brought from the northern west of China, Central Asia and/or Minor Asia. It was necessary for the Chinese to select the best one among foreign horses, therefore a certain criterion was needed. It was the Heavenly Horse 天馬, “Blood-sweating horse 汗血馬” originating in an area in Central Asia. In my studies, I tried to find how the “Blood-sweating Horse” was connected with “Heavenly Horse 神馬” and how its characteristics and figures were represented in ancient Chinese texts.

Key words : Heavenly Horse(神馬), The Heavenly Horse(天馬), Blood-sweating horse(汗血馬), Water, The cultural exchange-between the East and the West(東西交流).